

# 김말봉의 대중소설 『찢레꽃』의 사상

— 휘트먼과 아리시마 다케오, 그리고 아나키즘

서정자

초당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 1 김말봉과 휘트먼의 만남
- 2 『찢레꽃』의 사상
  - 2.1 휘트먼과 아리시마 다케오, 그리고 아나키즘
  - 2.2 대중성 강화와 사상성 구현방식
  - 2.3 휘트먼의 생사관과 페미니즘
- 3 나오며-꽃이 진 빈 가지의 사상

작가는 오랜 시간 ‘찔레꽃’을 인간의 행복에 비유하여 사유해온 듯하며 그렇기에 소설 『밀림』에서도 『찔레꽃』에도 「찔레꽃」 노래가 등장하며 작가의 말에서도 “사람은 모든 대가(對價)를 다 바쳤습에도 불구하고 손에 쥔 것은 왕왕이 쓸쓸한 빈 가지뿐일 때가 많음에라! 참으로 꺾기 어려운 찔레꽃!”이라 하였다. 『찔레꽃』의 주인공 안정순은 가시에 찔리면서도 모성의 전형처럼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 작가는 자신의 개신교 신앙을 넘어 가톨릭의 성모상을 등장시키고 주인공 안정순을 이 성모상과 함께 찔레꽃의 상징으로 그렸다. 성모와 안정순은 모성의 전형이면서도 가시 돋친 빈 가지의 슬픔을 감내하는 존재들이다. 어렵게 피어난 꽃은 어느새 하르르 지고 안정순을 향하여 사랑하고 오해하며 멸시하고 짓밟던 사람의 부끄러운 얼굴들이 정순의 모성에 기대어 있다. 작가는 안정순의 가시밭길을 그리고 있지 않다. 휘트먼이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 부자와 빈민 등 분리 대립된 가치와 제도로 인한 차별과 핍박을 모두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듯이 소설에서 제도에 의해 분리되고 억압받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은 휘트먼의 사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아 찔레꽃의 상징에 응한다. 작가는 대중소설에 사상성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다양한 인물에 잠입시켜 흥미를 유지하면서 사상성을 성공적으로 담아냈다. 강원도에 농업공동체를 구상하고 실천해 나아가려는 경구의 기획을 중심으로 적서차별 철폐와 농촌공동체의 재건, 빈부격차의 해소, 죽음의 묘사에서 종교의식의 합일 등을 보여주고 가부장주의와 남성우월주의를 비판하면서 남녀평등을 옹변으로 부르짖기도 하였다. 본고는 휘트먼의 혁신적 사상을 받아들인 아리시마 다케오의 사상적 역정이 김말봉의 휘트먼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휘트먼의 사상과 함께 참고하여 『찔레꽃』의 사상을 규명해보았다. 찔레꽃의 사상을 육화해 보여준 존재 안정순은 작가의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나타내며 동시에 성모마리아 이미지로 그린 찔레꽃이다. 신 구교의 경계를 넘어 찔레꽃을 삶의 상징으로 제시한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돈과 사랑을 좇는 꽃들이 모두 진 빈 가지의 성모 이미지 또는 모성이야말로 우리 삶의 구원이라는 사상이다.

국문핵심어: 김말봉의 『짚레꽃』, 『짚레꽃』의 사상, 월트 휘트먼, 톨스토이, 조지 스타이너, 모성, 기쿠치 칸, 아리시마 다케오, 링컨, 아나키즘

## 1 김말봉과 휘트먼의 만남

김말봉의 시 「오월의 노래」<sup>1</sup>에는 김말봉 가정의 일부가 그려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벽 위에 걸린 베토벤과 링컨은 무슨 이야기에 저리도 잠겼는지”라는 대목이다. 피아노 연주와 성악이 취미인 김말봉이 베토벤의 사진을 건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링컨’이라니 상당히 뜻밖이다. 미국 제16대 대통령(1809.2.12~1865.4.15)의 사진이 김말봉의 방에 왜 걸렸으며 그 이름을 시에 쓴 것은 무슨 까닭일까. 『짚레꽃』에는 『밀림』과 달리 어떤 사상성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 경구의 농촌운동 기획이 삽입되어 시대와 사상성의 구색을 갖춘 느낌 정도다. 그러나 경구가 안정순에게 건네주는 월트 휘트먼(1819.5.31~1892.3.26)의 시집 『풀잎』과 링컨 사진을 연관시킬 때 그 의미는 극대화된다. 휘트먼은 바로 링컨의 암살로 인한 죽음을 애도하며 유명한 “Oh, Captain! My Captain!”을 쓴 미국의 민중 시인이자 아나키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휘트먼의 사상이 민주주의와 평등사상이며 소설에서 경구가 미국 여행 중에 겪은 인종차별의 장면이 집중적으로 묘사된 것, 정순이 조두취의 가정교사로 취직해 짐을 싸면서 『검둥이의 설음』을 가방에 넣는 소설의 첫 부분 등은 휘트먼 사상이 소설 『짚레꽃』의 전개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휘트먼의 사상과 소설 『짚레꽃』의 상관성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서 김말봉이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샤 여학교 전문부 영문과에 재학할 때 야나기 무네요시는 영문학 강의를 했고 어떤 계기여서였는지 김말봉의 보증인이었다.<sup>2</sup> 그가 강의 시간에 휘트먼의 시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 처음 휘트먼의 시를 번역한 사람은 미국 유학 체험자 아리시마 다케오이며 첫

1 김말봉, 「오월의 노래」, 『신가정』, 1935.5, 8쪽.

2 서정자,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김말봉의 『밀림』과 『짚레꽃』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97쪽.

번역 작품을 야나기 무네요시가 1910년 창간한 백화(白華 시라카바)에 실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재단의 도시사대학 영문과에 시인 정지용이 재학하고 있었고 야나기 무네요시는 대학부에서도 영문학 강의를 했는데 정지용은 블레이크와 함께 휘트먼의 시를 해방 전과 후에 번역했다. 이로 볼 때 야나기 무네요시 강의를 통해 김말봉이나 정지용이 휘트먼을 만났다고 보아 무리는 없을 듯하다. 아리시마 다케오는 1921년 휘트먼의 시집 『풀잎』을 번역 출간했고 휘트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카인의 후예』, 『어떤 여자』등을 썼다. 1922년 김말봉은 송영고등 여학교 4학년에 편입 유학했는데 아리시마 다케오는 1923년에 하타노 아키코와 자살했다. 아리시마 다케오의 자살과 함께 그의 문학과 휘트먼의 번역시집도 화제가 되었을 것이다. 김말봉과 정지용은 교토에서 종종 압천변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최동호 교수가 엮은 『정지용전집 2』 산문을 보면 지용이 누님이라고 부르는 조선여자유학생과 산책한 이야기가 몇 편이나 나온다. 이때 휘트먼의 시와 사상에 대하여 대화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한편 부산에 왔던 미국 북 장로교 선교사 어을빈부인과 소학교에서부터 도시사전문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다시피한 김말봉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알려졌으나 1926년 초량교회에서 불신자와 결혼함과 동시에 교회로부터 책벌을 받았고, 그의 문학에서 제도적 기독교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기도 하며,<sup>3</sup> 『질레꽃』에서는 아예 성모상의 사진틀을 선물로 등장하게 하는 등 이 시기 기독교 신앙에 어떤 큰 변화가 감지된다. 『밀림』 재론에서 이를 독일의 신신학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았지만 아리시마 다케오의 기독교 신앙 변화를 참고하면<sup>4</sup> 김말봉의 기독교 신앙의 이러한 변화는 크로퓏킨과 함께 휘트먼의 반역자(loafer 叛逆者)적 사상과 관계가 없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이 휘트먼 사상과의 만남은 해방 후 그의 소설에 빈번히 등장하는 아메리카에 대한 동경을 해석할 단서도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아리시마 다케오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성적 본능의 갈등으로 고뇌하다가 휘트먼의 영향으로 성적 본능에 충실한 삶을 택해

3 서정자, 「김말봉의 『밀림』 재론—야나기무와 기독교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79쪽.

4 김민아, 「아리시마 다케오 문학과 기독교관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 일문과 박사논문, 2009.

소설화하였는데 김말봉이 노초(露草)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첫 소설 「시집살이」가 바로 이 성적 본능을 주제로 한 소설임을 상기할 때 1925년 무렵 이미 김말봉은 아리시마 다케오 또는 휘트먼의 영향하에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좀 더 살필 것이다.

『짚레꽃』은 대중소설로서 경이적인 성과를 거둔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밀림』도 우리 문학사에서 대중소설의 성공적인 등장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짚레꽃』의 인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up>5</sup> 『짚레꽃』은 1936년 1월 26일 작가의 부군 전상범(全尙範)씨가 사망하여 이로 인해 1935년 9월 26일부터 시작한 『밀림』 연재가 한 달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연재되었으나 다시 6개월 연재 후인 8월 29일 『동아일보』 강제정간(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밀림』 연재는 또다시 쉬게 되어 이때 『조선일보』의 이은상 편집국장이 소설 연재를 부탁해 쓰인 소설이다. 김말봉은 “준비도 없이…” 어떻게 쓰느냐고 답했다가 7개월 후인 1937년 3월 31일부터 『조선일보』에 『짚레꽃』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부산에서 써서 기차에 실어 보내는 방식으로 원고를 전했는데 김말봉의 글씨가 악필이어서 반드시 원고를 다시 정서해 보내야만 하는 등 그야말로 피 말리는 작업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소설 『짚레꽃』의 문장이나 구성은 실로 빈틈이 없어서 오늘날 읽어도 흥미와 감동이 여전한 한국문학의 명작 중 하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짚레꽃』 연구는 ‘대중소설’, ‘연애서사’ 연구가 주를 이루나 작가론 또는 사상에 대한 연구가 없는 만큼 본고의 『짚레꽃』의 사상 규명이 의미가 없지 않으리라 본다.<sup>6</sup>

『밀림』은 전작으로 써서 두고, 연재하였으리라고 추정되었고<sup>7</sup> 작가가 쓴 글에 의하면 편집 데스크의 간섭으로 상당한 분량이 깎이거나 수정되었다는 것이

5 김향명은 『짚레꽃 피는 언덕: 김말봉』(명서원, 1976)에서 여러 차례 『밀림』은 『짚레꽃』만큼의 인기가 없었다고 쓰고 있다.

6 ‘짚레꽃’을 주목하고 소설 전체가 짚레꽃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무차별적인 자기희생이라는 신비화된 모랄이 『짚레꽃』의 1930년대적 통속적 요소라고 본 서영채의 논문이 있다. 그러나 30년대 후반이 근대적 이념 추구의 합리성이 사라진 공간이기 때문에 사상성이 깃든 대중소설 통속소설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 점은 아쉽다.

7 서정자, 앞의 논문, 175쪽.

므로<sup>8</sup> 시간이 촉박하여 그런 검열이 덜했을 『절레꽃』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 있는 점이다. 『밀림』이 주인공 중심의 순차적 플롯이었다면 『절레꽃』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 각 인물에 작가의 사상을 잠입시켜 끊임없이 역할을 바꾸며 주제를 엮어나간다. 그런 가운데 휘트먼의 이원론의 한국적 현상일 적서의 차별, 빈부의 격차, 지배 피지배 권력의 대립, 가부장주의의 남녀차별 등 뿌리 깊은 사회 문제를 소리 없이 고발하기도 하면서 삶의 비극적 인식과 그 구원을 모색하는 절레꽃의 사상을 깊이 있게 그려낸다.

## 2 『절레꽃』의 사상

### 2.1 휘트먼, 아리시마 다케오, 그리고 아나키즘

『절레꽃』에는 경구가 동생 경애에게 하는 수수께끼 같은 대화가 나온다. 경구는 어릴 때부터 부잣집 자식이라고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친구들에게 이단자같이 몰리게 되어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고 싶었다고 하면서 “넌 아무것도 모른다. 너와 내가 선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 것을 너는 아직 모른다.”(밑줄 인용자)<sup>9</sup>라고 경구는 부자들의 선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이 이어지지만 경구가 종교적 입장에서 자신들의 자리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 쓰인 ‘위험’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시대는 만주사변(1931)이 터져 있고 또 한편으로 일제는 중일전쟁(1937.7.7)을 일으키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1937년이다. 프롤레타리아 사상운동도 일제의 검거와 탄압으로 침체기에 들어간 시기로 가난한 사람은 몰라도 부유계층이 ‘위험’을 느낄 시기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유권자’로 특권을 누리던 때가 아니었던가. 이 말은 휘트먼의 언어와도 닮지 않았다.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이 말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말에 가깝다. 조지 스타이너의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에 “인간은 가난한 사람을 통해 부활할 수 있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톨스토이즘 또는 도스토옙스키의 ‘넋의 리얼리즘’에서 받은 영향이

8 김말봉, 「십만 애독자에게 보내는 작가의 편지」, 『삼천리』, 1935.11, 71쪽.

9 김말봉, 『절레꽃』,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4, 302-303쪽. 이하 본문에 쪽수만 표시.

아닐까.<sup>10</sup> 경구는 작가를 대신해서 『질레꽃』의 사상을 말하고 행동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순이 『검둥이의 설움』을 가방에 넣고 민수의 배웅을 받으며 조두취의 집에 오지만 처음부터 정순이 경구와 짝을 이뤄 『질레꽃』 사상을 구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기에 휘트먼이 노래했던 인종차별 비판의 소설을 가방에 넣었던 것이다. 김말봉의 아나키즘은 크로포킨, 톨스토이 등의 영향도 있었던 것이며 휘트먼의 민주주의 사상, 반역자의 사상 영향도 있었던 것이다.

경구는 정순에게 귀국선물로 ‘성모상’의 사진틀을 주었고 휘트먼의 시집 『풀잎』을 원서와 함께 주며 읽어보라 한다. 경구가 교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온 길이다. 이는 작가가 휘트먼을 일본 또는 미국을 통해서 접했다는 암시처럼 느껴진다. 경구가 정순에게 휘트먼 시집은 읽어보셨습니까? 물었을 때 정순이 겸손하게 답한다.

네, 몇 군데 읽어보았는데요. 비교적 어렵기는 해도 꽤 좋은 글 같아요.  
...어디 알아야지요....

“천만의 말씀 좌우간 다른 시인들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착한 것... 이런 것을 전부 구가하고 예찬하였지만 휘트먼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착한 것은 물론 ...심지어 최악까지도 찬미하였으니까요. ...좌우간 휘트먼의 가슴은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이 다른 시인이 도저히 흉내 내지 못할 위대한 시인이니까요. 하고 경구는 빙그레 웃었다.” (309쪽)

이 대목은 휘트먼의 일원론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다. 일원론적 갈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아리시마 다케오다.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는 1878년 동경에서 태어나 아버지 아리시마 다케시(有島武)가 사쓰마 가신으로 출발하여 대장성 관리가 되고 요코하마 세관장을 지냈기 때문에 요코하마에서 성장한다.

---

10 조지 스타이너,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김응교, 『김응교 문학에세이-그늘』, 새물결 플러스, 2012, 319쪽에서 재인용.

부친은 실업가로서도 수완을 발휘, 입신출세한 인물로 지나치리만큼 집요한 성격과 지독한 열정을 지녀 장남에 대한 기대를 엄격한 교육으로 나타낸다. 아리시마 다케오는 ‘부친 콤플렉스’를 지니게 되었으며 아리시마 고뇌의 원형인 이원론적 사고의 씨앗이 이에서 비롯하게 된다. 요코하마의 미션스쿨에서 인간존중의 교육을 받다가 아버지의 신분상승 지향사고로 학습원으로 옮겨 서당식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부적응, 삿포로 농학교에서 기독교에 입신하나 기독교 교리를 거스르는 왕성한 성욕과<sup>11</sup> 니도베 이나조와의 사상적 갈등, 군대체험에서 국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악을 은폐하는 기관으로서 아무 쓸모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일 등은 그의 이원론적 갈등을 더욱 강화시킨다. 아리시마의 반군국주의적 사상은 후일 그의 아나키즘 사상으로 이어진다.<sup>12</sup> 1903년 8월 25일 아리시마는 미국유학을 떠나는데 미국에서의 4년은 아리시마에게 결정적인 전환기가 된다. 아리시마는 톨스토이의 비전론과 크로폿킨의 무정부주의를 만나 러일전쟁을 보는 시각을 달리한다.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아리시마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부정하는 한편 상호부조에 의한 무정부주의 사회를 동경하게 된다. 문학, 예술을 통해 신 중심에서 자기중심으로 사고를 바꾸고 인습을 강요하는 일본사회를 부정한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하버드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회주의자 가네코를 통해 아리시마는 휘트먼을 만나게 된다. 휘트먼의 시를 통해 로퍼(loafer 叛逆者)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적 윤리관에서 떠난 진정한 자아각성의 길을 깨닫게 된다.<sup>13</sup> 로퍼(loafer)란 무정부주의의 생명의 영향의 중심에 있는 자를 로퍼라고 하고 개성의 요구 내부 충동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했다.<sup>14</sup> 아리시마 다케오의 소설 『카인의 후예』, 『어떤여자』가 바로 로퍼로서의 삶을 그린 것이다. 로퍼로서의 삶이 곧 무정부주

11 그는 끝내 내면세계의 분열을 겪는데 아리시마에게 있어서 성욕의 문제는 기독교와 관련하여 고뇌의 근원이었다. 그러한 모순을 극복해가는 통일된 자아상 추구는 아리시마 문예의 핵이다.

12 이서윤, 「아리시마 다케오 문학연구—고귀한 반역자상의 추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10, 22쪽.

13 위의 논문, 29쪽.

14 위의 논문, 61쪽.



의자의 삶이다. 휘트먼은 아리시마에게 있어서 이원론적 고통을 초월한 자유인이었으며 자기 자신의 내부적 요구를 그대로 나타낸 본능적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다. 휘트먼 문학을 통해서 아리시마는 지금까지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원적 세계로 봐왔던 관념에서 벗어나 선과 악이 통합된 개념의 일원적 세계를 발견했다.<sup>15</sup> 경구가 정순에게 하는 말이 휘트먼의 통합된 일원적 세계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리시마 다케오의 기독교관의 변용을 따라가면 김말봉의 아나키즘 내지 기독교사상의 변용과 상당히 흡사함을 느낄 수 있다.

말하자면 경구를 통해 ‘성모상’의 사진들을 정순에게 전해주는 것도 작가의 기독교관의 변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던 아리시마가 미국으로 가서 크로포킨과 톨스토이 휘트먼을 만나 기독교적 윤리관에서 떠나 진정한 자아각성의 길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원적 세계로 봐왔던 관념에서 벗어나 선과 악이 통합된 개념의 일원적 세계를 발견하는 것처럼 작가 김말봉도 ‘독실한’ 개신교적 윤리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이원론적 고통을 초월한 자유인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 살펴겠지만 경구가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아리시마가 이룩한 농촌공동체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정헌에 의하면 월트 휘트먼이 일본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19년 5월 白鳥省五의 『휘트먼시집』이 최초이며 1921년 부일줄화(富日躋花)의 『풀잎(草の葉)』,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의 『휘트먼시집』이 그 뒤를 잇는다.<sup>16</sup> 신인섭은 대다수의 일본 지식인들은 대만과 한국을 합병한 일본 제국주의에 심리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었으나 아리시마 다케오만은 식민지 획득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사적인 형태였지만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작품 속에서 문제화했다고 썼다.<sup>17</sup> 정헌의 논문에는 한국에서 휘트먼의

15 위의 논문, 181쪽.

16 정헌, 「일제 치하 한국의 휘트먼 수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정치적 이상과 인간적 현실 : 월트 휘트먼 시와 이념의 세 단계」의 부논문, 1995, 10쪽. 그러나 아리시마 다케오가 번역한 휘트먼의 시가 『白華』에 실린 것은 1910년이다. 김민아, 「아리시마 다케오문학과 기독교관의 변용에 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9, 54쪽.

17 신인섭, 「일본근대지식인들의 근대상-근대소설 속의 일본 아시아 유럽/아리시마 다케오의 경우-」, 『일본어문학』 제12집, 한국일본문화회, 2000, 306쪽.

시를 번역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소개한 전신자와 그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정리 되어있다.<sup>18</sup> 그러나 김말봉은 한국에 수입된 휘트먼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도시샤 대학시절에 이미 그의 시를 접했고 아리시마 다케오의 문학을 통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김말봉은 일본 유학 전에 부산에서 신문화운동을 하면서 아나키즘을 접했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에도 첫 남편과 함께 공부하면서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말봉에 대하여 5,60년대에 문단과 잡지계에서 일할 수필가 정명숙은 여성 작가 중에 가장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이 김말봉 선생이라고 증언했다.<sup>19</sup>

소설 『찐레꽃』을 쓰는 전후로 김말봉은 인생의 행복과 관련하여 ‘찐레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소설 『밀림』의 여주인공 자경도 현제명의 ‘찐레꽃’을 축음기로 들었고<sup>20</sup> 소설 『찐레꽃』의 주인공 정순도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찐레꽃’노래를 듣는 등 두 작품 모두에서 언급했다(506). 두 장면은 주인공의 심경이 극도로 착잡하고 비참할 때다. 김말봉은 이 찐레꽃에 만만치 않은 은유를 베풀어 놓았다. 이 찐레꽃은 김말봉의 오래고 깊은 사유를 거쳐 소설 제목으로 등장했으며 사상과도 관련이 있으리라고 본다.

작가 김말봉 개인을 놓고 보면 우선 『밀림』 연재 도중 겪은 남편 전상범의 죽음이 준 충격과 고통이 있다. 장질부사를 앓아 철도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불이 나서 김말봉이 엮고 나왔으나 사망했다고 한다. 전상범과 신문화운동을 함께 하던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는 아픔도 겪은 바 있고, 이혼 후 다니던 『중외일보』를 그만두고 홀로 아이를 기를 때 빈곤에 처하기도 했으리라. ‘찐레꽃’은 전상범이 좋아하던 시(詩)였다.<sup>21</sup> 소설 『밀림』과 『찐레꽃』에는 현제명이라는 성악가 이

18 그는 한국문학에서 20년대 초기에는 휘트먼을 민중시인으로 이해하였고 1930년대에 들어서 ‘민주주의 시인’ ‘육체의 소중함을 강조한 시인’ ‘시작법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을 이룬 시인’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19 정명숙은 김말봉과 함께 『학원』등 많은 잡지에 글을 쓴 조혼파의 부인이다. 이 말은 정명숙 수필가에게 필자가 직접 들었다.

20 김말봉, 『밀림』 1,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4, 672쪽.

21 김항명, 「찐레꽃 피는 언덕」, 정하은 편,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139쪽.

름과 ‘찔레꽃’ 노래 가사 녀 줄이 나온다. 말하자면 이 노래에 대한 정보는 이것이 모두다. “찔레꽃같이 괴로운 그대 맘같이/내 가슴 내 가슴에 품어주게나/시내 언덕 풀숲에 찔레꽃 피네/희고도 고운 찔레꽃 피었다지”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사의 모두다. 현재 현재명의 노래 파일검색이 가능해 두 노래가 같은 노래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sup>22</sup> 가사를 다 파악할 수 없게 파일이 망가져 있다.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의 시 ‘찔레꽃’<sup>23</sup>을 참고하여 가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두 소설에 연달아 나오는 찔레꽃을 김말봉이 쓴 『찔레꽃』 「작자의 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자.

인생의 행복은 진실로 한 떨기 찔레꽃과 같습니다. 그 압하고 교만한 가지 우에 나뭇기는 꽃! 그것은 언제나 수고와 피와 땀을 요구하고 잇는 값비싼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대가(對價)를 다 바쳤슴에도 불구하고 손에 쥔 것은 왕왕이 쓸쓸한 빈 가지뿐일 때가 많음에랴! 참으로 꺾기 어려운 찔레꽃!

소설 찔레꽃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꽃과 같이 향기롭고 달콤한 사랑의 길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괴로운 가지 때문에 울지 안흐면 안

22 노래가 뚜렷이 들리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23 김항명, 앞의 글, 139쪽.

찔레꽃이 피었네  
 하얀 하얀 꽃이  
 찔레꽃의 가시는 아프다네  
 파아란 침의 가시는 아프다네  
 찔레는 밭 언덕에 가지를 펴고  
 언제나 지나는 길목을 지키네  
 찔레도 가을이면 열매를 맺네  
 황금빛 동그란 구슬을 맺네  
 나는 찔레꽃 곁에서 울었네  
 모두 모두 상냥스런 웃음을 보내는데  
 나만은 찔레꽃 곁에서 울었다네  
 -기타하라하쿠슈 「찔레꽃」

되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인간은 빵으로 산다. 그러나 사랑으로 산다. 어느 말이 참이겠습니까?  
작가는 독자 여러분을 향하여 평범한 이 한 마디의 설문(設問)을 드리고  
십습니다. 김말봉작 김웅초 화<sup>24</sup>

이 작가의 말은 한 편의 시와도 같다. 딱 열 문장이다. 찢레꽃이라면 산에 들에 흔히 피는 실로 민중의 꽃이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장미의 품종 개량을 위해서 접목용으로 그 몸을 내어주는 헌신의 꽃이기도 하다. 대중소설의 제목으로 손색이 없는 『찢레꽃』 작가의 말 열 문장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자.

인생은 진실로 한 떨기 찢레꽃과 같다고 명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가지는 교만한 가시를 달고 있어 만지면 아프다. 그런데 그 가시투성이의 가지에 꽃이 피어나부킨다. 나비처럼 연약하게 ‘나부끼는 그 꽃’은 그러나 언제나 수고와 피와 땀을 요구하는 값비싼 약속이다. 흔하고 무성하지만 그 꽃은 가지를 꺾기 무섭게 아니, 거의 절로 가지에서 떨어져 내리기에 수고와 피와 땀을 요구하는 값비싼 약속이 된다. 그래서 수고와 피와 땀을 다 지불하고도 빈 가지만을 손에 쥐는 인간의 행복과 같다는 것이다. 김말봉의 비극적 인식을 보여주는 찢레꽃의 사상이다. 소설 『찢레꽃』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이 꽃과 같으며 아직 가지에 달려있어 향기롭고 달콤한 사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괴로운 가지 때문에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찢레꽃을 가장 좋아하는 이가 주인공 안정순이다. 좋아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일까? 그러나 안정순 역시 돈(빵)과 사랑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사람의 딸이다.

김말봉의 『찢레꽃』에 나타난 휘트먼의 사상을 중심으로 김말봉의 문학을 다시 보는 중 김말봉의 첫 단편소설 노초(露草)의 「시집살이」도 휘트먼 사상의 영향 아래 쓰였다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이 소설은 김말봉의 작품이 분명하다는 생각이다. 1925년 4월 동아일보 신춘문예 현상모집 가정소설 부문에서 3등으로 당선한 「시집살이」는 신부 을순의 눈으로 어린 신랑과 자신의 부부생활을 바

---

24 김말봉, 「작자(作者)의 말」(『조선일보』 1937.3.27.), 『찢레꽃』(원본신문연재소설전집 2권), 깊은샘, 1987, 211쪽.

라보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즉 자기 개아로서 성욕을 고민하는 심리를 다룬 소설이다. 을순은 결국 여성에게 씌워진 정조관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한 행실의 여자로 낙인찍혀 죽음을 택하는 이야기로 끝나지만 운명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 운명을 거슬러 본 소설이라는 점에서 휘트먼의 ‘육체와 본능적 성의 소중함’을 강조한 사상에 통하며 로퍼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 ‘육체와 본능적 성의 소중함’을 다룬 소설은 해방공간에 쓰인 『꽃과 뱀』(후일 『바람의 향연』이라 개제)에 이어진다.

## 2.2 대중성 강화와 사상성 구현방식

김말봉이 소설 『밀림』을 연재할 때 김말봉을 기쿠치칸에 비교하는 평이 많았는데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소설을 쓰십니까?” 그는 말했다. “이 사람 보래.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돈 벌라고 쓰지 뭣 때문에 쓰겠노.”<sup>25</sup> 이렇게 김말봉은 당당히 답했다. 일본의 치열한 예술지상주의자 기쿠치칸은 1923년 9월 도쿄 대지진을 겪고 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다.

진재(震災)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회혁명이었다. (...) 우리 문예가의 첫 번째 타격은 문예라는 것이 생사존망의 경지에서는 골동(骨董) 서화와 똑같이 무용(無用)의 사치품이라는 것을 절감한 일이었다. 지금도 아직 바락크에 살면서 그날그날의 생활이 불안한 사람에게 『기쿠치칸전집』을 읽을거리로 선사할 마음은 없다. 완전한 의식주(衣食住)의 보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학은 사치품이다.<sup>26</sup>

그는 “생활 제일, 예술 제이(二)”라는 신념 아래 통속소설가로 전향하였고 1924년 1월에 창설한 문예춘추사를 통하여 생활 제일이라는 신조를 실천화 하

25 김태영, 「신문소설의 백미」, 정하은 편, 앞의 책 24쪽.

26 김춘미, 『김동인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119쪽.

였다.<sup>27</sup> 유명한 아쿠다가와 상과 나오키 상을 제정한 사람이다. 김말봉의 소설에서 자주 만나는 글귀가 “예술은 생활에 양보한다.”이지 않던가. 도쿄 대진재가 일어났을 때 김말봉은 어머니가 별세하여 한국에 나와 있었다. 도쿄 송영여고보에 재학 중일 때다. 다시 도쿄에 가서 나머지 학기를 마치게 되는데 도쿄 대진재의 비극을 목도하다시피 하였을 것이고 기쿠치칸의 선언과 함께 그가 대중소설가로 성공가도<sup>28</sup>를 달리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의형씨의 제안과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한 것도 빈곤이 원인이었을 터. 따라서 기쿠치칸의 새로운 문학관에 김말봉은 충분히 공감하였을 것이다. 고료를 위해 최초로 글을 쓴 것이 신춘문예에 응모한 「시집살이」였다고 본다. 『중외일보』 기사를 그만두면서 그는 소설을 쓰는 것으로 생계를 세우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밀림』을 구상하고 쓰던 30년대 초반에 비해 1937년 무렵은 사상성을 내세우기 어려운 시기였다. 따라서 김말봉이 『밀림』보다 『짚레꽃』에 사상성을 부여하는데 고심한 것으로 보이며 사상성이 대중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밀림』에서는 첫머리부터 주인공이 사회적 현실에 눈을 뜨는 장면이 제시되고 소설은 주인공의 의식이 변화하는데 따라 행동이 순차적으로 뒤따른다. 사상성이 앞장서는 형국이다. 그러나 『짚레꽃』에서는 주인공 안정순이 취직을 위해 돌아다니다 스승 김부인을 만나 ‘전격적으로’ 조두취의 집 가정교사로 추천을 받아 조두취의 집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더위를 무릅쓰고 정순을 따라가던 독자는 더위를 씻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뿌려진 정원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다만 생활이 있고 일상이 있어 독자는 부담 없이 소설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있다. 『짚레꽃』은 그렇게 사상성을 앞세우지 않고 부잣집 호화로운 실내로 안내하며 선망하는 부잣집 사람과 집안 내부를 주인공의 이동을 따라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밀림』의 주인공이 부잣집 아들(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과 딸인 것과 달리 『짚레꽃』의 주인공 안정순은 가난한 집 딸이자 생활전선에 나선 ‘직업여성’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밀림』의 주 무대가 외부이자 ‘사회’였다면 『짚레꽃』의 주 무대는 내부 또는 ‘가정’으로 축소된 것도 주목된다. 주 무대가 가정으로 축

27 위의 책, 119쪽.

28 문예춘추(文藝春秋)편, 『天才 菊池寛—일화를 통해 본 작가의 민낯』, 문예춘추, 2013. 162쪽.

소된 것은 당시의 전운이 감도는 살벌한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조두취의 집에는 자녀가 일곱인데 위로는 교토제국대를 졸업하고 세계 일주 중인 장남 경구와 일본에서 전문부 미술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있는 과년한 딸 경애를 비롯하여 경자 경옥 영길 영남 그리고 어린 용길이가 있어 가정교사에 보조역할까지 하게 되는 구성이다. 주인공은 소설 첫머리에서부터 등장인물군(登場人物群) 속으로 들어선 셈이다. 가족 중 조두취나 그 부인 경애어머니 정씨, 경애, 경구, 그리고 침모는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따라서 작가의 사상성은 주인공의 행동 선을 따라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인물군에 나뉘어 잠입된다. 정순의 집 속에 소설 『검둥이의 설음』이 들어간 것이 그 한 예이다.

김말봉 작가를 쓰기 위한 오랜 자료조사에서 끝내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던 것의 하나가 ‘제주’와의 관련 설이었다. 김선목씨나 박노석씨 모두 첫 남편 이씨는 제주 사람이라고 증언을 했다. 첫 남편의 이름 이의형<sup>29</sup>씨와 살던 곳 목포, 그리고 집안 인물까지 소상하게 알려주던 차범석 예술원회장도 그가 제주 사람이라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1986년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를 편해 낸 정하은도 제주 사람이기는 하나 김말봉의 이씨와는 관련이 없었다. 정하은은 이종하씨의 큰딸 이정순의 남편으로 그러니까 이종하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말봉의 사위다. 그렇게도 드문 제주관련 서사가 『짚레꽃』에 쓰여 있다. 게다가 제주서사의 주인공 민수가 서자라고 밝히고 있는 대목은 놀랍다. 민수가 아버지의 몰락으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외가가 있는 제주로 가서 살면 어떨까 궁리할 때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도사의 만남이 그려진다, 말을 사러 온 이도사는 자신이 ‘상처한 사람’이라고 속이고 민수의 어머니와 결혼, 민수를 낳는다. 밀양으로 돌아간 아버지가 밀양으로 오라고 하지만 본처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민수어머니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제주에 남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 어쩔 수 없이 민수는 아버지가 있는 밀양으로 가서 큰어머니라는 큰마누라 밑에서 자란다. 이때 민수는 자기가 ‘서(庶)다리’라는 걸 알게 된다. 사전에는 나오지 않으나 ‘서다리’는 서자(庶子)의 방언으로 여겨진다.

---

29 첫 번 자료제시에서 이씨를 이의현씨라고 잘못 적었으나 다시 신문자료를 뒤져 이의형씨의 잘못임을 지난 논문에서 밝혔다. 서정자, 앞의 논문, 178쪽 참조.

1930년 이래로 김말봉이 어찌면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이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출생 비슷한 이야기를 이 제주서사에서 서다리 민수를 등장시켜 우회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사실은 놀라우며, 휘트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소설에서 적서의 차별을 언급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물론 이 제주서사는 미친 말의 서사를 집어넣기 위한 복선이겠으나 김말봉이 첫 남자와 헤어지게 된 이유의 하나를 여기에 쓴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1930년 무렵만 해도 작가는 첫째 매매(정지용씨가 지어준 이름)의 존재를 당당하게 이야기했었다.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제주사람 이의형씨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고 김말봉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사실이 밝혀진 다음 이씨와 헤어져 서울로 올라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설의 큰마누라처럼 이의형은 폐결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아 나오면 『찔레꽃』에 나온 제주서사는 김말봉이 자기를 투사한 서사일 수 있다. 김말봉은 『찔레꽃』에 이 제주에서 승마를 익힌 민수로 하여금 미쳐 날뛰는 말 위의 경애를 구하는 서사를 배치하여 서사를 팽팽한 긴장으로 끌어올렸으며 민수는 자기 아버지의 저당한 토지를 경매함에 한 달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은 부호 조만호와 윤영환에 정면으로 맞서는 통쾌한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 아니 오히려 승자와 패자가 그 위치를 바꾸게 된다. 이도사의 토지가 조두취 은행의 경매에 부쳐짐으로써 민수와 조두취집안과의 관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민수의 출생에서 제시된 적서의 차별 문제는 휘트먼의 사상에서 이원대립의 갈등을 일원론으로 통합하듯이 큰마누라 길수 어머니의 화통한 한마디로 대립 갈등이 해소된다.

밀양에는 민수의 큰어머니라는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마누라가 몹시 민수를 귀여워하였다.

“그까짓 서(庶)다리.”

하고 어느 일가 사람이 말을 하였다가 큰어머니에게 뿌옇게 무안을 당한 일까지 있었다.

“남은 서다리라 할란가 몰라도 우리집에서는 귀한 아들이라고. 민수가 없으면 우리 길수가 얼마나 외롭겠소…그나 그뿐인가 민수 호적이 뉘 밑에 있건대? 내 이름 밑에 있어요, 내 이름.”(66~67)



그러나 적서의 차별이라는 비인간적인 적폐는 길수어머니의 호령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민수어머니는 ‘속아서’ 유부남과 결혼을 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큰마누라의 호적에 올라있지 않은가? 민수어머니는 결혼과 아들에 대한 친권 부분에서 그 권리를 크게 유린당한 것이다. 김말봉은 이런 문제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사상성에서 보자면 사실 경성제대에 다니는 민수는 소설에서 맡은 역할이 대단치 않다. 자신의 어머니의 슬픔에 공감은커녕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시골부잣집 아들이 서울로 유학해 일약 지식인 계층에 진입했지만 식민지 치하의 시대적 고민이라든가 개아의 문제 따위로 갈등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늙은 아버지의 착한 아들이며 집안이 몰락하자 하숙비와 학비를 걱정하는 일개 소시민의식을 가진 인물일 뿐이다. 정순을 빼앗긴 복수로 경애를 유린할 궁리나 하는 자요, 미친 말의 광태에서 경애를 구한 대가로 주는 포상금 오천 원을 던지는 호기는 있을망정 경구의 농촌운동에 함께 할 열정은 없는 냉소적 인물이다. 이 소설에서 농민의 몰락을 한 개 전형으로 보여준 이도사의 애경사에 쓴 지나친 비용 낭비, 또는 허례허식에 대하여 대학생 민수는 한마디의 만류가 없었던 점도 지적해 마땅하다.

휘트먼의 『풀잎』을 정순에게 읽으라고 준 경구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본 것은 인종차별이고 개만도 못한 인권이었다. 그가 휘트먼의 민주주의와 평등사상에 공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sup>30</sup> 그리고 땅을 잃고 고향을

---

30 정현, 앞의 글, 30쪽. 여기에 휘트먼이 명상 속에서 어린아이가 휘트먼에게 풀잎의 본질을 질문하자 비로소 한 답변의 시를 인용하여 휘트먼 사상의 일단을 소개한다.

풀잎은 자신의 낙관적 기질을 나타내듯 초록색으로서 우주 속에서 신의 계시를 나타내는 대표적 자연물이다. 풀잎은 인류의 무궁한 역사의 무한 반복을 증명하는 어린아이 자신이며 성급한 비약을 거쳐 흑인과 백인 간 평등의 상징물도 된다. 즉 풀잎은 개체와 전체를 모두 차별 없이 포용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절대로 그치지 않는 인류의 성장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풀잎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종교적으로 인간의 영혼 불멸을 암시하기도 한다. 휘트먼은 풀잎으로부터 영원한 소멸은 없다는 종교적 깨달음까지 얻는다. 작은 새싹 하나의 영원한 반복적 생명력은 시인에게 본질적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종말은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하게 만든다. 체세포는 소멸하지만 생세포는 계속 이어진다는 현대 과학철학과 비슷한 인식이다. 이 같은 생각은 죽음이 보통사람 생각과는 다르며 오히려 행운일 수도 있다는 역설적 진술도 가능하게 한다. 풀잎의 본질을 묻는 아이의 질문을 받은 ‘나’는 이렇게 갑자기

떠나 도회로 도회로 밀려가는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에 착수한 것은 곧 작가의 사상구현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농민은 지주다. 땅을 갈아 거기서 곡식과 채소와 실과를 내놓는 농부야말로 땅의 주인이 아니고 누구냐?”

조선을 먹여주는 사람, 조선을 입혀주는 사람, 그리고 조선을 구원해줄 사람은 오직 농부뿐이다. 그들의 손에 쥐인 호미와 팽이야말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던 모세의 거룩한 지팡이가 아니고 무어나 (...)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헐벗고 그들이 근심과 불행에서 울고 있을 동안 조선천지에는 영원히 광명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손에는 정말(丁秣, 덴마크)의 농촌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듯 영역 팸플릿이 쥐여 있다(206~209). 『짚레꽃』에서 휘트먼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을 하려는 경구의 선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구는 젊은이들에게 나눠줄 종이(농민운동 취지서?)를 등사기로 인쇄한다. 정순이는 등사를 도우면서 읽는다.

‘오라 뜻이 같은 젊은이들이여!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하고 번민만 하는 시절은 지나갔다. 산과 들은 바야흐로 우리들의 계획을 부르고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려보내라 부르짖던 그리스도의 음성은 오늘도 조선 하늘에서 들리고 있다. 넓은 들은 임자를 기다려 메말라가고<sup>31</sup> 있건만 땅의 주인인 농부는 자기들의 무기요 전장이요 생명인 농장으로 안심하고 돌아가지 못한다. 아니 이미 거기서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늙고 자기 몸이 나서 자란 그 땅 그 들에서 쫓기어 도회로만 몰려가고 있다. 무저항의 입과 같은 도회는 날마다 날마다 농촌의 청년을 몰아다 직접 간접으로 그들을 참살하고 있는 것이다.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들은 시시각각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물이 아니고 무엇이나. 아니 그보다도 도회 특유의

---

기 깨달음을 얻은 현자처럼 풀잎의 종교적 민주주의적 의미와 더불어 생명론을 거쳐 우주적 깨달음을 설파한다.

31 원문 ‘메마르고있건만’을 인용자가 수정.

면지와 병균으로 탁하여진 공기 속에서 가지각색의 죄악이 그들의 영혼을 쪼먹고 있다. 아아 동무여! 우리는 그들을 늙은 어머니의 품으로 기다리는 아내와 어린 아들의 집으로 그리하여 그들이 쫓겨나온 그들의 눈과 발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226)

기독교 입신 후 아리시마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동정하게 된다. 사회의 악을 생각하게 되고 그 악의 근원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농업혁신을 위하여 아버지가 농장을 마련해준 것이 자신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아리시마 농장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 아리시마 다케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장을 소작인의 소유로 돌리고 지주로서의 자기 권리마저도 포기한다. 홋카이도에 있는 이 농장은 현재도 공동경영이라는 관습을 유지한 채 번영하고 있는데<sup>32</sup> 경구의 농업공동체 구상은 아리시마의 경우가 모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백화파의 무샤노코지와 아리시마 두 사람이 농업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부잣집 자식들이라는 것, 이점은 부잣집 아들 경구가 농업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와 같은 것도 주목하게 된다.

소설에서 이 종이는 등사를 돕는 정순이 한 사람이 가장 진지하게 읽고 있다. 『짚레꽃』의 주인공 안정순은 보육학교를 졸업하고 밀양<sup>33</sup> 한실에서 유치원 교사를 했으나 유치원 설립자 이도사(민수 아버지)의 경제적 몰락으로 유치원이 문을 닫아 실직하게 된다. 정순은 서울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이유를 알 수 없이 미쳐가는 아버지의 병원비 감당이 수월치 않고 게다가 몇 달 치가 밀려있는지라 당장 취직이 화급한 형편이다. 이러한 가족 구성은 작가 김말봉의 처지와 비슷하다. 다섯 살 된 김말봉의 손을 잡고 밀양을 떠나 부산으로 온 작가의 아버지 김윤중은 안질을 앓아 삼십 년간 의원을 따라다니는 등 지병과 싸우고 있었기에 식구들의 양식이며 집안살림 일체를 어머니의 바늘 한 개로 지탱해갔다고 한다. 김말봉은 부산 어을빈소학교와 일신여학교를 거쳐 서울의 정신여학교로 전학을 하는데 이때

32 구노 오사무·쓰루미 슌스케, 심원섭 역, 『일본 근대 사상사』, 문학과 지성사, 1994, 18-19쪽.

33 밀양은 김말봉이 태어난 원적지이며 셋째 부군 이종하의 본적이며 김말봉의 호적지다.

서울 올라갈 비용을 마련하느라 의복도 팔고 다듬잇돌이며 간장항아리를 팔아서 여비를 장만해주었다고 해 그의 형편이 짐작된다.<sup>34</sup> 빈곤과 싸우는 정순이 경구의 눈에는 구원의 여상으로 찍힌다. 경구가 정순이를 자신의 결혼 상대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정순이 가난하기 때문이었다.

“(…) 경애야 내가 정순을 택한 것도 물론 그의 미모라든지 그의 인격이라든지 모두 충분히 내 맘을 끌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내 맘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가난한 처녀라는 까닭이었다. 맨 처음 가정교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난한 처녀여! 하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303)

오빠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경애가 정순에게 하는 행동에는 주인과 고용인 관계 이외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시종한다. 심심할 땐 말벗으로, 쇼핑할 땐 대동하는 비서같이, 일요일 휴무라는 상식도 지켜지지 않는 직장 가정교사! 지배 피지배의 대립, 그리고 부와 빈의 대립. 경구가 이 이원적 대립을 용납하지 않고 식모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서 경구가 여행에서 돌아와 선물을 나눠줄 때 정순에게 성모상을 준 일을 기억해야 하겠다. 『밀림』의 전반(全般)을 흐르는 기독교 정신은 제도적 개신교 신앙을 비판하는 시각을 보이는 한편으로 가톨릭에 의지하는 인애를 그리는데 가톨릭의 입교방식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해 수정하는 문장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가톨릭시즘에 대한 관심은 『절레꽃』에서 주인공 안정순을 성모마리아 이미지로 설정함으로써 잇고 있다. 가톨릭시즘에 대한 김말봉의 호의는 어찌 된 것일까? 소설 『절레꽃』을 보면 “경구는 용길을 안고 있는 정순이가 바로 자기가 귀국 기념으로 정순에게 보내준 마돈나의 그림과 같이 생각되어 일순 정순에게 합장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sup>35</sup>고 되어있으며 가정교사인 정순은 보통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영남 영길 용길과 함께 놀아주는 선생이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들이 느끼는 정순의 이미지는 성모마리아의 그것처럼 여성미의 극

34 김말봉, 「어머니의 추억」, 『평화신문』, 1957.5.9.

35 김말봉, 『절레꽃』, 273쪽.

치이자 모성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안정순의 묘사를 모아보면, 대체로 정순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데 값 높은 영혼'에 경애나 주인마누라 정씨의 핍박을 견디는 인내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희생 등으로 정순을 진선미의 결정체로 그린 듯하다.

/신비스러운 이 향기. 발아래 흰 눈처럼 깔려있는 화변들! 보아주는 이 없어도 홀로 피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향기를 보내주는 찔레꽃! 경애는 정순을 보는 순간 그의 아름다운 용모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찔레꽃 앞에 와서 그는 비로소 정순의 값높은 영혼을 보는 듯하였다./ (정순의)동그스럼한 두 뺨이 봉선화같이 붉어졌다./경애의 살빛은 배속같이 약간 창백하고 정순의 뺨은 능금꽃 같이 밧그레하고 경애는 턱이 가름하고 정순은 아랫볼이 조금 나온 듯하고, 경애의 눈은 깊고 정순의 눈은 맑고 서늘하고, 경애의 몸은 호리호리하고 사지가 가늘고 정순은 날씬한 키에 적당히 살이 있어 몸 전체에 연한 탄력이 있어 보이고, 경애의 가슴은 약간 들어간 듯하고 정순의 가슴은 소복이 부풀러있고/정순이 여성미의 절정이다/기름도 바르지 않고 지지지도 않은 정순의 검고 윤택하고 그리고 보드라운 풀같이 고운 머리칼/그보다도 모시 적삼 깃고대로 가웃이 내다보는 크림 빛의 목덜미. 자그마한 쪽 아래로 귀여운 솜털! 연지를 얹게 물들인 듯한 동그스럼한 귓바퀴/ (11,26,51,84,91,139,140)

성모상과 찔레꽃, 가시와 관계가 있는 두 이미지는 매우 흡사한 상징이라 하겠다. 작가가 기독교나 가톨릭의 경계를 넘은 합일, 기독교신앙의 변용을 여기에서 본다.

김말봉의 사상구현은 이처럼 적서차별 제도와 농촌공동체의 재건, 교활한 부자 윤행환에 농락되는 이도사의 현실, 소작을 붙이려고 겪는 슬픈 빈부격차, 신구교 대립의 합일 등이 인물 구조 곳곳에 베풀어 있어, 사상이 이야기의 흥미나 진행을 가로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밀림』과 대비되는 기법이라 하겠다.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가의 사상을 여성들의 삶을 중심으로 이어서

살펴보겠다.

### 2.3 휘트먼의 생사관과 페미니즘

김말봉의 소설에서 주인 마누라는 늘 앓아누워있다. 『찔레꽃』의 경애어머니 정 씨 역시 늘 보료에 기대거나 누워있는 처지다. 누워있는 병인(病人)의 처지이지만 침모를 통해서 집안을 살살이 감독하는 총명한 여인이기도 하다. 친정의 도움으로 남편이 부와 지위가 확고해졌건만 도리어 남편의 외도에 질린 처지라 가정교사와 남편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소상하게 파악하는 일이 그중 큰일이다. 경애어머니는 남편이 안정순과 불륜이라도 일으킬까 감시하고 퍽박하지만 정순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의심을 풀고 오히려 정순의 좋은 점을 보며 자신이 죽은 다음 후취로 와 주었으면 하고 소원해보기도 한다. 경애가 승마 중 미친 말의 발작으로 기차와 부딪쳐 죽을 뻔한 위기를 정순의 애인 이민수가 구해내자 그에 보답하는 모임 날 혼자서 죽을 고비를 겪는데 이때 죽음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번민하는 중에 작가 김말봉의 생사관이 피력돼 흥미 있다. 경애어머니는 먼저 하느님을 부른다. 그리고 석가여래님도 불러본다. 모두 자기와 같은 적은 존재를 알아줄 성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현실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여야 할 죽음의 마당에 들어서자 그는 이 세상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었다. 그는 지금 자기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이 간절한 맘이 죽은 뒤라도 그대로 사라져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는 자기를 낳아서 기른 부모의 영혼을 불러본다. 그는 부모의 환영에게 자기가 간 뒤에 아이들을 돌보아줄 여인을 지시해 달라고 해본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그것은 오직 주재자이신 그의 뜻에 달린 것이라고 한다. 경애어머니가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대목은 실로 리얼하다. 남편 전상범 등 가족의 죽음을 겪은 탓일까 경애 모친의 죽음의 과정을 묘사한 대목은 실감 나며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종교적 단계를 넘어 휘트먼의 죽음과 삶도 하나라는 영향을 보여주는 듯해 놀랍다.

그뿐 아니라 늘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는 딸 경애에게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듯 남기는 유언은 자못 진지하다.

혼인하기……싫거든……하지마라……사람은 ……다 죽는 것인데……  
자식이나……남편을 ……두고……죽으면……더 괴로운 게다…….  
(269)

당시의 어머니 세대에서 이런 발언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혼인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사람은 다 죽는 것인데, 여성에게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지워진 혼인을 ‘하기 싫거든 하지 말라’고 말하는 대목은 신선하기조차 하다. 집안에서 아이 낳고 살림만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장남 경구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첫 출근을 한 아버지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기척을 들으며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하소연하던 일을 기억해낸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하소연을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주셨더라면 것처럼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작가는 남자의 특권에 대해서 일갈한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은행에 처음 나온 조두취를 그의 친지들은 저녁때가 되자 요릿집으로 모시고 기생 옥란을 불러 호텔로 보내었다. 그들은 이것이 친구로서 아내가 죽은 지 불과 반달이 된 친구를 대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소리내어 웃었다는 것이다.

그 웃음은 배우자가 죽으면 평생토록 다른 이성을 대하지 아니하여야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인이란 동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라는 전능의 인간으로 세상에 나온 것을 만족하여 웃는 웃음이리라. 아내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돌씩 셋씩 다른 여인을 거느릴 권리가 있는 이상 그 아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두 주일이란 시간이 지난 이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리고 기생의 매끄러운 가슴을 안는 것이 그들 사나이라는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인지라 망처에 대한 여간 미안한 생각과 후회가 약간 그의 양심을 건드려본다 한들 이미 사회라는 조직이 그들 사나이들의 본위로 되어있는 이상 그 후회라든가 미안이란 생각은 무더운 밤 모기 한 마리의 무는 고통보다 가벼운 것이 아닐까. (289)

경애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딸에게 혼인을 굳이 권하지 않겠다고 하였을 것이다. 작가는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주의가 철옹성처럼 둘러쳐진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앞장에서 살폈지만 민수어머니가 속아서 첩의 자리로 결혼을 한 것도, 아들 민수가 큰마누라의 호적에 올라있는 것도 모두 가부장주의 사회의 모순인 것이며 폭력인 것이다. 김말봉은 여성의 억울한 처지를 웅변으로 고발하고 있다. 여기에 휘트먼의 사상을 끌어와 본다면 휘트먼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던가.

사람 자신을 나는 노래한다, 독립된 개인을,/그런데 ‘민주적’이란 말 ‘대중’이란 말을 나는 표명한다.//머리에서 발끝까지, 인체의 기구에 대해서 나는 노래한다./시신(詩神)의 눈에 값진 것은 인상(人相)만이 아니라, 두뇌만이 아니라, 요컨대 완전한 ‘인체’는 더욱 값진 것/‘남자’와 똑같이 ‘여자’를 나는 노래한다.//정열, 맥박, 활력의 광대무변한 생명에 대해서/성스런 법칙 아래 행해진 가장 자유로운 행동으로 하여/상쾌한 ‘근대인’을 나는 노래한다.//<sup>36</sup>

김말봉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휘트먼의 시를 통해 다시 한번 남녀평등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다. 유색인과 백인의 평등도, 주인과 노예의 평등도…우리 모두는 사람 자신, 인간 자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휘트먼의 민주주의를 아리시마 다케오의 회심과 함께 공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절레꽃』에서 악역은 왜 여성이 말아야 했던가? 그야말로 빵을 위해, 상처한 조만호두취와 결혼하려고 노리는 여자가 둘이다. 하나는 기생 옥란이고 또 하나는 침모의 딸 영자다. 혼인을 노린 사기에 살인사건이니 이 두 여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인이고 범죄자다. 하지만 옥란이 최근호라는 순정과 남성의 목숨을 건 사랑을 버리고 부호 조만호의 후취자리를 노리는 저변에는 황금에 눈이 어두운 점도 있지만 미혼모로 낳은 아들 수남이까지 조두취의 호적에 올려준

36 윌트 휘트먼, 「나는 사람자신을 노래한다」, 신동집역, 『윌트 휘트먼 시집』, 정음사, 1976의 권두시.



다는 달콤한 말에 사랑을 버리고 ‘돈’을 택한 것이다. 수남이와 옥란의 뒷배를 보아주며 함께 사는 오빠의 식구들을 책임지자면 옥란은 최근호의 ‘사랑’만 가지고는 턱없이 돈이 부족하다. 그래 철석같이 결혼을 약속했던 최근호를 배신하고 조만호의 후취로 들어 앉아보려다 조만호가 가정교사 안정순과 결혼하기로 결정됐으니 첩으로 있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칼을 들고 가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옥란의 경우에는 아들을 자신이 기르기로 하나 영자는 미혼모가 되어 아들까지 뺏긴 경우다. 이들은 결국 소설에서 악역을 맡게 된 것인데 김말봉은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기는 했으나 그들에게 악역을 맡길지언정 어떤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이 역시 대중소설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대중의 윤리 감각을 넘어서지 않아야 할 것을 작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탓이다.

### 3 나오며-꽃이 진 빈 가지의 사상

김말봉의 『밀림』은 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을 ‘이념적인 측면’으로 제시했고 『찔레꽃』에서는 휘트먼의 ‘풀잎’의 사상을 소설의 뼈대로 삼아 대중성과 사상성(진지성)을 성공적으로 잘 녹여내었다. 김말봉은 스스로 대중소설가라고 천명했으나 대중소설 속에 사상성 또는 진지성을 대중소설의 강점을 살려 그려냈다. 대중소설미학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고양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도적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요컨대 대중성을 훼손시키지 않고자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켜 이들 인물에 작가의 사상을 잠입시켰다. 일찍이 일본 유학시 접한 휘트먼을 김말봉은 소설 『찔레꽃』에 수용하여 그의 아나키즘을 더욱 풍부하게 적용한다. 소설에서 경구가 말했듯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착한 것은 물론 (...) 심지어 죄악까지도 찬미하였으니까요. (...) 좌우간 휘트먼의 가슴은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이 다른 시인이 도저히 흉내 내지 못할 위대한” 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리시마의 용어를 빌려온다면 휘트먼은 “이 원론적 고통을 초월한 자유인으로 통합된 개념의 일원적 세계”를 노래한 시인으로 작가는 이를 소설에 반영했다. 휘트먼의 사상을 살피는 중에 김말봉의 첫 작품 「시집살이」도 휘트먼의 사상의 영향아래 쓰였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 전통적

으로 금기였던 여성의 성문제를 정면으로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휘트먼 또는 휘트먼의 성의식을 소설화한 아리시마 다케오의 영향이 있었다는 심증이 뚜렷해진 때문이다.

작가는 오랜 시간 ‘찔레꽃’을 인간의 행복에 비유하여 사유해온 듯하며 그렇기에 소설 『밀립』에서도 『찔레꽃』에도 「찔레꽃」 노래가 등장하며 작가의 말에서 “사람은 모든 대가(對價)를 다 바쳤습에도 불구하고 손에 쥘 것은 왕왕이 쓸쓸한 빈 가지뿐일 때가 많음에라! 참으로 꺾기 어려운 찔레꽃!”이라 하였다. 『찔레꽃』의 주인공 안정순은 가시에 찔리면서도 모성의 전형처럼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 작가는 자신의 개신교 신앙을 넘어 가톨릭의 성모상을 등장시키고 주인공 안정순을 이 성모상과 함께 찔레꽃의 상징으로 그렸다. 성모와 안정순은 모성의 전형이면서도 가시 돋친 빈 가지의 슬픔을 감내하는 존재들이다. 어렵게 피어난 꽃은 어느새 하르르 지고 안정순을 향하여 사랑하고 오해하며 멸시하고 짓밟던 사람의 부끄러운 얼굴들이 정순의 모성에 기대어 있다. 작가는 안정순의 가시밭길만을 그리고 있지 않다. 휘트먼이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 부자와 빈민 등 분리 대립된 가치와 제도로 인한 차별과 핍박을 모두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듯이 소설에서 서자 이민수, 기생 옥란, 농민 이도사, 지주 윤영환, 은행두취 조만호, 부잣집 도련님 경구, 부잣집 딸 경애,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는 어머니 정씨, 은행원 최근호, 사생아 수남이 등 제도에 의해 분리되고 억압받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휘트먼의 사상을 잠재적으로 드러내면서 찔레꽃의 상징에 응한다. 작가는 대중소설에 사상성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다양한 인물에 잠입시켜 흥미를 유지하면서 사상성을 성공적으로 담아냈다. 본고는 휘트먼의 혁신적 사상을 받아들인 아리시마 다케오의 사상적 역정이 김말봉의 휘트먼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휘트먼의 사상과 함께 참고하여 『찔레꽃』의 사상을 규명해 보았다. 찔레꽃의 사상을 육화해 보여준 존재가 안정순이다. 안정순은 작가의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나타내며 동시에 성모마리아 이미지로 그린 찔레꽃이다. 신 구교의 경계를 넘어 찔레꽃을 삶의 상징으로 제시한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돈과 사랑을 좇는 꽃들이 모두 진 빈 가지의 성모 이미지 또는 모성이야말로 우리 삶의 구원이라는 사상이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김말봉, 『짚레꽃』(원본신문연재소설전집 2권), 깊은샘, 1987, 211-271쪽.  
\_\_\_\_\_, 진선영 편, 『짚레꽃』, 소명출판, 2014.  
\_\_\_\_\_, 「오월의 노래」, 『신가정』, 1935.5, 8쪽.  
\_\_\_\_\_, 「십만 애독자에게 보내는 작가의 편지」, 삼천리, 1935.11, 71쪽.  
\_\_\_\_\_, 「어머니의 추억」, 『평화신문』, 1957.5.9.

### 단행본

- 김동길, 『링컨의 일생』(3판), 샘터, 2015, 218-230쪽.  
김미현, 「여성연애소설의 (무)의식—김말봉의 『짚레꽃』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221-252쪽.  
김응교, 『김응교 문학에세이—그늘』, 새물결플러스, 2012, 319-322쪽.  
김춘미, 『김동인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119쪽.  
김항명, 『짚레꽃 피는 언덕: 김말봉』, 명서원, 1976, 서문.  
문예춘추 편, 『天才 菊池寬—일화를 통해 본 작가의 민낯』, 문예춘추, 2013, 162쪽.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11쪽.  
서영채, 「19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과 그 의미—김말봉의 『짚레꽃』을 중심으로」,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1996, 173-197쪽.  
심원섭, 『한일문학의 관계론적 연구』, 국학자료원, 1998, 79쪽.  
정하은 편,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47쪽.  
조성면 편, 『한국근대 대중소설비평론』, 태학사, 1997, 415쪽.  
최동호 엮음, 『정지용전집2—산문』, 서정시학, 2015, 326쪽, 460쪽.  
가가와 도요히코, 김재인 역, 『그리스도교입문』, 레베카, 2015.  
우스이 요시미, 고재석·김환기 역, 『일본 다이쇼문학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6-199쪽.  
윌트 휘트먼, 신동집 역, 「나는 사람자신을 노래한다」, 『윌트 휘트먼 시집』, 정음사, 1976.

## 논문

김민아, 「아리시마 다케오 문학과 기독교관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 일문과 박사논문, 2009.

서정자, 「김말봉의 페미니즘 문학연구」, 『여성과 문학』 제1집, 한국여성문학연구회, 문예출판사, 1989, 292-314쪽.

\_\_\_\_\_,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김말봉의 『밀림』과 『찔레꽃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90-230쪽.

\_\_\_\_\_, 「김말봉의 『밀림』 재론—아나키즘과 기독교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 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74-210쪽.

신인섭, 「일본 근대지식인들의 근대상-근대소설 속의 일본 아시아 유럽/아리시마 다케오의 경우-」, 『일본어문학』 제12집, 한국일본문학회, 2000, 303-325쪽.

이서윤, 「아리시마 다케오 문학연구—고귀한 반역자상의 추구」, 단국대 박사논문, 2010, 22-182쪽

정다현, 「해방 전후 정지용의 시 의식의 변모와 휘트먼 시 번역의 관련 양상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0쪽.

정 현, 「정치적 이상과 인간적 현실 : 윌트 휘트먼 시와 이념의 세 단계」,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 Abstract

The Thoughts of Kim Mal-Bong's Popular Novel *Jjillekkot*(찔레꽃 *The Brier Flower*)  
—Walt Whitman, Arishima Takeo, and Anarchism

Seo Jung-ja

Kim Mal-Bong has long used “Jjillekkot” as a metaphor for human happiness. The song <Jjillekkot> appear in novels 『*Millim(Jungle)*』 and 『*Jjillekkot(The Brier Flower)*』. “People pay all the price, but what they hold in their hands is often a lonely empty branch, Jjillekkot, really hard to get!” Kim said. An Jung-Soon, the heroine of *Jjillekkot*, walks the path of motherhood through all kinds of difficulties. Even though Kim was a Protestant believer,

she used the Catholic Virgin image, and portrayed the main character Ahn Jung-soon as the Virgin Mary and a *Jjillekkot*. The Virgin Mary and An Jung-Soon are the epitome of motherhood, yet endure sadness.

People who misunderstand, despise and trample An Jung-Soon rely on her motherhood. Kim doesn't just describe An Jung-Soon's difficulties. Whitman affirmed and accepted discrimination due to conflicting values and institutions: good and evil, men and women, white and black, rich and poor. In Kim's novels, characters separated and oppressed by social regulation reveal Whitman's ideas, which are also symbols of *Jjillekkot*. Kim did not bring ideology to the fore in popular novels, but showed them through various characters. For example, Kyung-goo conceived of an agricultural community in Gangwon-do, showing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legitimate sons and bastard sons, reconstruction of rural communities, resolv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unity of religious consciousness. And with his voice, the writer criticized patriarchalism and male supremacy.

I thought that Walt Whitman's innovative ideas and Arishima Takeo's ideas had a profound influence on Kim. Based on Whitman's ideas, I investigated the ideas of *Jjillekkot*. Ahn Jung-soon is a person who specifically showed *Jjillekkot*'s thoughts. Ahn is *Jjillekkot*, depicted as the Virgin Mary, which represents Kim's tragic perception of life. Kim showed *Jjillekkot* as a symbol of life. Even if the flowers fall off and become empty branches, the wounded flowers become the salvation of life like the Virgin Mary or motherhood.

Key words: Kim Mal-Bong's *Jjillekkot(The Brier Flower)*, thoughts of *Jjillekkot*, Walt Whitman, Leo Tolstoy, George Steiner, motherhood, Kikuchi Kan, Arishima Takeo, Lincoln, Anarchism

본 논문은 2020년 11월 17일에 접수되어 2020년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